



군종주보

2024년 5월 5일(제1192호)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의 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지요. 그럴 때면 아무리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종종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나아가고 그의 곁에 머물려는 결연한 모습 때문에 사랑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도 애잔한가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던 때가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자, 배신할 자들, 자신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마음의 간극을 아시면서도 그들 곁에 있기 위해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은 목숨까지도 불사한 거야. 그러니 부디 너희가 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그러니 잠시 혼자 되어도 너무 두려워하지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릴 제자들을 위해 이리도 단단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등을 돌립니다.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숨어서 끝까지 따라갔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지요. 죽음이 풍기는 두려움

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등을 보인 제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계셨지요. 부활로 제자들과 마주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의 등을 바라보며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간극, 나를 등지고 있는 그들을 보며 쓸쓸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삶과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랑하기 위해 머무는 사랑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생명 주일입니다. 죽음이 만연한 문화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죽음이 풍기는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서 외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의지할 곳 없이 서 있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연한 죽음의 문화가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해도 우리는 사랑 하길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박동진(인드레이) 신부
해병중앙(해병대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본보송

사도 10,25-26.34-35.44-48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1요한 4,7-10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요한 15,9-17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복 음 영 성 제 송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네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불무골에서, 1857년 9월 15일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 신부님께

어제 제가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서한을 드리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부님께는 따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드릴 말씀은 곧 신부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그러운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낸 저의 서한을 신부님께도 보낸 것으로 여기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1856년 8월에 보내주신 서한은 잘 받았습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가끔이라도 저에게 서한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외로움과 적적함을 어떻게 달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어지간히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베르뇌 주교님만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 큰 병에 걸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시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주교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일하시고, 당신의 목자 직무에 너무 골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듯 위대한 목자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교님의 과감한 혁신과 건설로 교우들이 크게 고무되어 있으며, 모든 이가 주교님을 다정한 마음으로 우러러 공경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 주교님을 오래 장수케 하시면 조선 교회는 굉장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올 다블뤼 주교님께서서는 조선 교회의 역사, 특히 우리 순교자들의 역사 편찬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푸르티에 신(申) 신부님은 (배론) 신학교 교장이시고, 페롱 신부님은 아직 말 배우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매스트르 이(李) 신부님과 프티니콜라 신부님과 저, 이렇게 셋만이 베르뇌 주교님을 도와 신자들의 사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창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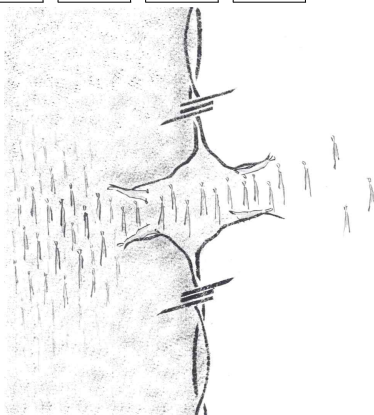
지킴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그런 이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코르넬리우스의 환시



게르브란트 판 덴
에흐쿠틀
(Gerbrand van den
Eeckhout:
1621년 ~ 1674년)
1664년 作
캔버스 위 유화
94.3x126.3cm
윌티스 아트 미술관
볼티모어, 미국

오늘 제1독서에는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평소에도 신심이 깊어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많이 기도하였다고 나오는데, 본 성화는 코르넬리우스가 천사를 보는 환시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어느 날 오후 세 시쯤, 그는 환시 중에 지기기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기도와 나의 지신이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아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사도 10.3-6) 본 작품에서도 왼쪽에 구름 같은 것에 둘러싸인 천사가 보이며, 코르넬리우스가 (갑옷으로 그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다) 무릎을 꿇고 천사의 말을 듣고 있다. 이후, 베드로 성인 또한 환시를 보고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사도 10.34-35)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농무대 이동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천마대(미사일방어3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5일(주일)
- 국장회의 / 사제 평의회 / 참사회의
때·곳: 5월 7일(화), 교구청 회의실

- 주교 현장 체험
때·곳: 5월 9일(목), 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 간호사관학교 천주교 생도 내방 및 미사
때: 5월 11일(토) 16:00

“환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